

침체 빠진 서귀포항 활성화 언제쯤...

해수부,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공람 거쳐 1만t급 선석 확보 담겼지만 입항물량 확대가 핵심 관건

서귀포항의 화물 물동량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해안수산부의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21~2030년)에 서귀포항이 포함돼 화물선 대형화에 따른 선석 확대 등이 예고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안수산부는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서귀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이달 초 서귀포수협에서 주민설명회와 함께 공람·비대면 설명기간도 거쳤다.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서귀포항의 전체계획규모는 4만8702㎡로, 연안화물선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 3000t급 화물부두 5선석을 1만t급 2선석으로 변경계획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파향인 S계열 파랑에 대한 정온도(항만 내 수면의

파고 정도) 개선을 위해 기존 남방파제를 제거하고 377m의 외항방파제와 46m의 남방파제를 계획해 선박의 접근 등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제시됐다.

하지만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 물동량 확대는 수십 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57만8136t이었던 서귀포항 화물물동량은 2017년 103만3132t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81만3925t(전년대비 -21.2%), 2019년 77만9294t(-4.2%)으로 감소했다.

특히 육지로 나가는 제주삼다수 전용화물선 운항과 감골·채소 등의 출항 물동량에 비해 모래·유류 등의 입항 물동량이 적어 화물선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출항 물동량이 45만699t인 반면 입항 물동량은 32만8595t으로 전체 물동량의 42.2%에 그쳤다. 제주항 등



서귀포항의 화물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안수산부의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에는 1만t급 화물선 접근이 가능한 계획안 등이 담겼다. 사진은 서귀포항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도내 2개 무역항과 4개 연안항(애월·한림·성산포·화순항) 중 입항 물동량이 출항 물동량보다 적은 곳은 서귀포항과 성산포항(2019년 기준 입항 45.5%, 출항 54.5%) 2곳이다.

서귀포항의 입항 물동량이 적은 것은 육지부 출항지인 부산항과 목포·완도 등과의 물리적 운항거리가 길어 운항시간과 유류비에서 불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여객선 운항을 기대하며 2012년 서귀포항 터미널을 완공하고 2013~

2014년 여수·녹동, 부산, 녹동 항로 여객선 취항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실제 취항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진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해수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며 “설명회와 공람기간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6월쯤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축산농가 약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전

제주시, 51개소 점검서 21개소 위반사례 적발

제주시 관내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약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축산약취 근절을 위해 2018년 3월 1차약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와 약취 민

원 다발농가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약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 약취배출 허용기준 위반 여부,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및 주변 가축분뇨 유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도·점검 결과 총 51개소 중 21개소가 약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약취배출 허용기준 위반 농가는 3개월간 개선명령 기간에 약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선명령 기간이 지나면 재차 약취를 측정해 약취배출 허용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 개선명령에 대해 1차 미이행 시 사용중지 2개월, 2차 미이행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축산약취 민원다발 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수시로 약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60m 뚫린다

서귀포시는 남원을 태흥2리 마을회관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 60m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창고·감골나무)이 최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

이 도로는 1977년 8월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돼 2009년 4월부터 620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수용토지인 60m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불가로 이 구간을 제외하고 2014년 2월에 사업이 준공돼 마을 주민들이 우회 통행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미개설 구간 편입토지 1필지와 지장물이 토지주 사망으로 자손에

계 상속이 안돼 보상협의를 이뤄지지 않자 현재 관리인과 면담을 거쳐 사실상 상속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해 토지수용을 추진했고, 이달 10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면서 도로개설이 이뤄지게 됐다.

시는 수용 재결된 토지 소유자의 상속대상자에게 재결 결과와 보상비에 대해 법원에 공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도로개설사업이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27-28일 서귀포오일장서 광어 드라이브 스루 판매

제주시 지역에서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제주광어회 드라이브 스루 특별판매행사가 서귀포시에서도 열린다.

서귀포시는 27-28일 이틀간 향토오일시장에서 제주광어회 소비 촉진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어회를 시중보다 저렴한 한팩당(400g 안팎) 1만원에 하루 500팩을 오후 3시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정영현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장은 “제주광어회 드라이브 스루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양식수산물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시민 반응이 좋으면 어류양식수협과 협의해 추가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서는 9일동안 광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가 진행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문미숙기자

해안동·애월·조천읍 숲가꾸기 추진

제주시, 100ha 국유림 대상 “경제·환경적 가치있는 산림”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미세먼지·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해안동 및 애월읍, 조천읍 지역 100ha 면적의 국유림에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 5월부터 7월까지 숲가꾸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불량목과 병해충 피해목, 경쟁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솜아베기와 덩굴류 제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해 목재생산과 수원함양, 자연환경보전,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숲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숲가꾸기의 효과는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향상과 경제적 가치 증진 등 다양하다.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높아지고 20~30% 정도의 수원 함양 증가와 함께 홍수조절 기능, 수질 정화를 통한 맑은 물 공급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국유림뿐만 아니라 공유림에 대해서도 숲가꾸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림에 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일몰제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협의 속도

서귀포시, 10곳 매입 진행

서귀포시는 오는 7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우선사업대상 10개 공원에 대해 보상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서귀포시 지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도시공원 10개지구(178만3000㎡)에 대해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상반기 시-도간 TF 3차 회의에 걸쳐

우선사업대상10개소(삼매봉, 강창학, 월라봉, 식산, 영포, 새섬, 중문, 시흥, 태평, 장수1)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10개 공원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해 보상비 351억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는 4월 현재까지 393억원 중 보상비 321억원(81.7%)을 집행했다.

시는 오는 7월 일몰제 대비 10개 공원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정비가 완료된 대정읍 장수원(왼쪽)과 남원을 남빌레(오른쪽). 사진=서귀포시 제공

대정 장수원·남원 남빌레 용천수 2곳 정비 마무리

서귀포시는 최근 대정읍 장수원, 남원을 남빌레 등 용천수 2개소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용천수 정비에는 사업비 6500만원이 투입됐으며 태풍 내습에도 견딜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두 곳 모두 울레

길 코스에 포함됨에 따라 울레곶들이 제주용천수의 역사와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정비됐다.

이와관련 정영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우리 옛조상들의 생명수이면서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했던 중요한 장소인 용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주의 독특한 물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信川康氏 춘계대제 축소 봉향

2020년도 춘계대제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봉향합니다.

중천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차원에서 조천읍 봉소동 감사공묘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아 래

- 일시: 2020년 5월 5일(화요일)
 - 조천서원제: 오전 9시
 - 합동위령제: 오전 10시
 - 감사공 제향: 오전 11시
 - 정기 총회: 운영위원회 개최한 결과로 결함
- 장소: 조천읍 조천리 119번지 (봉소동 監司公 墓域)
- 참석대상: 제관 및 중천회 임원
 - ※ 장학금은 개별 계좌로 송금합니다.
- 연락처: 총무이사 성민 010-3698-5070
 - 총무부장 기종 010-3619-9651

信川康氏濟州道宗親會
會長 康王洙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주시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064)724-0991
핸드폰: 010-3639-0050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